

## 출처, 용도 모르는 거금 '미스터리'



▲ 출처와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채 경찰에 압수된 돈. 사진=아르헨티나 경찰

아르헨티나의 '현찰 택배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막대한 현찰을 숨긴 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럭이 아르헨티나에서 또 적발됐다. 적발 건수만 지난 3월 이후 20건이 넘는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지난달 29일 불심검문에 걸린 트럭에서 현금 490만 페소와 3,300달러를 발견해 압수했다. 트럭 곳곳에 분산돼 숨겨져 있던 현찰 490만 페소는 미 달러로 환산하면 약 7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월 2만 페소를 밑도는 아르헨티나에선 245개월치 최저임금보다 많은 거액돈이다.

3월 이후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서 트럭을 통해 몰래 운반되다가 적발된 현찰은 1억3,000페소를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사건은 20건을 상회한다. 경찰은 현금의 출처, 은밀한 운반의 목적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탈세를 목적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 물건을 사려는 소매상들의 돈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갈수록 액수가 커지고, 골드바까지 등장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은밀한 원격 거래 대금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기사들을 추궁해도 낯선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는 답변만 나온다."면서 "마약조직의 자금일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마약조직은 이렇게 허술하게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 대머리 남편 싫어 이혼 소송한 여성

인도의 한 20대 여성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뭄바이 교외 타네 지구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은 2년 전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단 하루 만에 예상치 못했던 진실과 마주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과 만나는 동안 가발을 이용해 대머리를 숨겨왔으며, 결혼식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난 후에야 이를 알게 됐다.

배신감을 느낀 여성은 이후 시댁 측에 남편의 머리숱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 시댁 측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후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남편의 가족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고, 결국 최근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이 신임 관계를 위배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만약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이 결혼



▲ 인도의 한 여성이 대머리 남편이 싫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shutterstock

식 당일까지 썼던 가발은 마치 진짜 머리카락처럼 보일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다."라며 고 밝혔다. 또 "남편과 시댁에게 이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며 별 일 아닌 듯 여겼다."면서 "남편은 신뢰를 어기고 거짓으로 결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여성의 남편과 남편의 가족은 현지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 화장실에 '타이머' 설치한 기업



▲ 화장실에 설치된 타이머와 감시용 앱. 사진=중국 웨이보

최근 중국의 한 기업은 사내 직원용 화장실의 칸마다 타이머를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의 기업은 틱톡의 라이벌로 유명한 '콰이쇼우'로, 베이징 본사 건물에 있는 직원용 화장실마다 디지털 타이머를 설치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 기업은 해명에 나서 화장실 타이머는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심각한 화

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물에는 화장실 수가 인원 대비 크게 부족하다."며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 문제상 불가능해 한정된 화장실 수로 직원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카운터 기능이 있는 타이머를 설치해 각 칸을 사용한 인원수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난이 줄어들지 않자 기업 측은 결국 직원들에게 필요한 수의 휴대용 변기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빈과일보'는 직원 화장실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업이 콰이쇼우만이 아니라고 전했다. 상하이에 있는 한 기업 역시 직원 화장실의 사용 시간을 하루 1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감시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앉는 데 불편하도록 설계한 화장실을 선보였다가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